

성수동서 키운 국산 의료기기... FDA 뚫고 96개국 수출

(미국 식품의약국)

혁신기업 돋보기

쉬엔비 강 선 영 대표

고주파·플라즈마 장비 美 FDA 6관왕
지난해 매출 412억 중 80% 해외 달성
“아름답고 건강하게” 신념으로 제조
브라질 중심 남미 시장 추가 공략
K-메디컬 선도기업 도약 목표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에는 순수 국산 기술로 피부 미용의 료기기를 만들어 전 세계 96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 쉬엔비(SHENB)가 있다. 쉬엔비가 연구개발을 통해 선보인 고주파(RF), 플라즈마, 초음파 장비 등 6종의 대표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전체 412억원의 매출액 가운데 80% 정도인 332억원을 미국, 러시아, 대만, 홍콩, 일본, 태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했다. 2023년 무역의 날에는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오는 2029년에 창립 30주년을 맞는 'K-메디컬 기업' 쉬엔비의 면면들이다.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자. 건강하게 만들자는 신념으로 의료기기를 만들었다. 초창기 한국산 장비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국내외 병원에 있는 우리 장비를 볼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

사회복지사를 하다 99년 당시 쉬엔비의 전신인 제이스 메디칼을 창업한 강선영 대표(사진)의 말이다. 첫 해 1000만원 수준이었던 매출은 창업 26년만에



강선영 쉬엔비 대표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본사 공장에서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4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사이 회사는 경기 수위와 성남을 거쳐 지금의 성수동에 터를 잡고 지상 11층 규모의 '쉬엔비 타워'까지 세웠다.

강 대표는 창업을 하자마자 한국보다 해외를 겨냥했다. 홍콩이 첫 타깃이었다. 그러다 미국 시장이 눈에 들어왔다. “남들이 중국을 갈때 나는 미국을 갔다. 미국에 대한 로망도 있었지만 FDA 인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미국을 뚫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11년부터 미국서 임상을 시작했는데 2016년에서야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5년이 걸렸다. 승인을 받고서야 미국 시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첫 승인을 받은 제품은 비바체(vivace)다. 비바체는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조직을 응고시키는데 사용한다. 비바체만 전 세계 64개국에 팔려나갔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쉬엔비는 이후 미국 FDA로부터 '서니(Sunny)'·'버추(VIRTUE)'(고주파), '플라두오(PLADUO)'(플라즈마), 'AF 레이저'(레이저), '다이아코어(DIACORE)'(전자자장) 등 다른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으며 'FDA 6관왕'이 됐다.

“미국은 의사가 아니어도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시장도 넓다. FDA 승인을 받아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선 현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FDA 승인은 마케팅 정도다. 현재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나라는 시장도 크고 K-뷰티에 열광적인 브라질이다.”

강 대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시장도 차례로 진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비바체의 아틀라스로 표피부터 진피까지 정밀하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서울 성수동에 있는 쉬엔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주파수와 쿨링 시스템으로 피부 통증을 낮추는 버추(VIRTUE), 그리고 다양한 피부층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여러 부위 시술이 가능한 고주파 의료기기 서니(Sunny)다. Sunny는 강 대표의 영문 이름이기도 하다.

특히 강 대표는 국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의사들과 협업해 논문을 통해 기술력과 제품 효과를 알려나가는 데 주력했다.

쉬엔비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OEM, ODM 요청도 많았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다. 기술을 팔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성수동에서 R&D부터 제조, 판매 등을 모두 다 하는 제조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한때는 마곡, 오송(충북), 원주(강원도) 등으로 옮길까도 생각했지만 (이전으로) 직원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만큼 성

수동에서 제일 기억하고 싶은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소지었다.

쉬엔비는 현재 전체 110여 명의 임직원 가운데 R&D 인력이 20% 정도다. 이들은 개발 1·2·3팀과 소프트웨어팀, 기구개발팀으로 나뉘 매년 신제품 1종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쿨링 시스템(ACS), 통합 펄스 고주파 시스템(IPRS), 통합 에너지 조절 시스템(IECS), 최소 깊이 조절 시스템 등 28건 이상의 지식재산권도 보유하고 있다. 이노비즈(기술혁신) 인증, 벤처 인증 등도 받았다.

강 대표는 “우리는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게 철학이다. 기술·아름다움·사람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K-메디컬테크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韓 도산안창호함 호평... 캐나다 60조 수주전 청신호

캐나다 승조원, 성능·운용성 긍정 평가
韓 잠수함 사상 첫 태평양 횡단 성공
최대 12척·60조 규모 사업 결정 임박
독일 TKMS와 최종 경쟁 구도 주목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의 최종 결정을 한달여 앞두고 한국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III)에 대한 현지 평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다 승조원들이 실제 항해 과정에서 한국 잠수함의 성능과 운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막판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 더글로

브랜매일과 공영방송 CBC 등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미국 하와이에서 도산안창호함에 합류해 23일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까지 이동한 캐나다 해군 제이크 디슨 하사는 한국 잠수함을 두고 “1999년식 혼다 시빅을 몰다가 신형 테슬라를 산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함께 탑승한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도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과 비교해 녹이 거의 보이지 않고 내부 공간이 넓었다며 최신행 잠수함을 경험하면서 새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더 분명히 느꼈다고 밝혔다.

도산안창호함은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해 호위함 대전함과 함께 지난 3월 진해 군항을 출항해 괌과 하와이를 거쳐 약 1만4000km를 항해하며 한국 해군 잠수함 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했다.

캐나다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지·보수·정비(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98년 영국에서 중고로 들여온 4척이 전부다. 데이비드 패켈 캐나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새 잠수함 도입 시점에 대해 “어제라도 필요했다”고 말하며 전력 보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의 최종 후보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제안한 KSS-III 계열 잠수함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타입 212CD로 좁혀진 상태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입항과 현지 승조원들의 긍정적 평가가 한국 측 제안의 실력 경쟁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벤처기업협회 초기벤처 가치 재조명 평가체계 구축 추진

벤처기업협회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손잡고 초기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26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협약을 맺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창업 초기 혁신 기업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전방위적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벤처·스타트업 전용 기업가치평가 체계 구축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데이터베이스(DB) 조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성장잠재력 분석 등 심도 있는 공동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벤처협회의 방대한 현장 네트워크와 KODATA의 데이터 분석력을 결합해 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정부 정책 연구, 진성 회원사 발굴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벤처협회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덜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벤처협회 회원사는 KODATA의 신용평가 및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과격적인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김승호 기자

기보, 중동 피해 中 4534억 지원

국민·하나와 포용금융 협약
수출입 기업 자금난 완화 초점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은행, 하나는행과 함께 중동전쟁 피해 중소기업들을 위해 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26일 기보에 따르면 국민·하나은행과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

외 정세 불안으로 환율·유가가 상승하고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국민은행의 특별출연금 30억원, 보증료지원금 20억원과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30억원,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총 4534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 AI 전환, 스타트업 기술로 돕는다

중기부,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모집하는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은 중견기업의 인공지능 전환·디지털 전환, 신사업 진출 등 협업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개사에서 24개사로 확대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실질적인 협업 성과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산업 현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주체로 신사업 진출, 디지털 전환,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혁신기술과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승호 기자